

##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배 호 중  
(성균관대학교)

한 창 근\*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시점과 관련된 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자금 대출액(부채)의 영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자금 대출 실태를 살피고,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 혼인이행 과정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혼인에 대한 연령규범(또는 만혼에 대한 부담)이 일정부분 존재하여 지연된 졸업기간 만큼 혼인을 서두를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혼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액이 많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혼인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목소리에 비해 아직까지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이 직면한 대표적인 어려움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을 연결하여 살펴보고, 향후 학자금 대출 및 청년들의 혼인이행을 둘러싼 정책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요 용어: 학자금 대출, 혼인이행,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생존분석

\* 교신저자: 한창근, 성균관대학교(chkhan@skku.edu)

■ 투고일: 2017.10.29. ■ 수정일: 2017.12.17 ■ 게재확정일: 2017.12.22

## I. 서론

80년대 초반 8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및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광범한 확산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2001년 이후에는 50만명을 밑돌게 되었으며 2016년 출생아수는 40.6만명으로 81년(86.7만명)의 절반수준에 그쳤다(통계청, 2017a). 자연스레 합계출산율 또한 1981년 2.57명 수준이던 것이 지속적 감소세를 기록하며 2001년에는 1.297명으로 초저출산 국가 반열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반등세를 기록하지 못한 채 2016년에도 1.17명으로 16년째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6).

저출산 문제를 국가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혼인시기의 변화(만혼화)나 비혼의 증가 또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혼인연령의 증가세는 (반대방향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여성(아내)을 기준으로 한 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 2000년 26.5세 그리고 2010년과 2015년 각각 28.9세와 30.0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7b). 이와 함께 혼인건수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혼외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 이하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우리사회에서 미혼율의 상승은 출산율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이삼식 등, 2010; 이상림, 2013). 실제로 혼인건수를 살펴보면 1990년 399.3천 건에서 2000년 332.1천 건, 2010년 326.1천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그보다 더 적은 수치인 302.8천 건의 혼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c).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처해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기혼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가임여성 중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에서 찾고, 이에 대해 설명을 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은기수, 2001; 전광희, 2002; 박순일 등, 2004; 김정석, 2006; 조은, 2008; 조희금 등, 2009;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 2010에서 재인용).

만혼 또는 미혼의 증가는 성인자녀들의 독립 시기 지연에 따른 노부모의 부담 증가, 향후 미혼노인의 고독사 등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이상림, 2013) 개인과 그들 가족의 안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기는 취업을 통한 원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 혼인 등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생애과정의 규범성이 존재한다(정민우, 이나영, 2011). 이전의 세대에서 보편적인 일로 여겨지던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현재의 청년들에게 부담을 넘어 때로는 그들이 성취하기에 요원한 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신조어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상황, 기약없는 취업 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 인간관계와 주택구입마저도 포기하는 ‘오포세대’ 등의 용어가 작금의 청년들을 일컫는 말로 등장하게 되었다(국립국어원, 2015; 이종아, 한창근, 2015). 때로는 비혼과 만혼의 현상은 정상가족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가족제도의 위기로 다뤄지기도 한다(박혜경, 2011).

그러므로 미혼에서 혼인으로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 전체의 출산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수준의 생활만족 수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으며, 혼인을 둘러싼 청년층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청년층의 혼인이행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혼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정석, 2006;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 2010, 이상림, 2013).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봐도 혼인을 오롯이 개인 또는 해당가족의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판단한 까닭에서인지 혼인이 갖는 인구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혼인 그 자체를 정책적 개입의 대상으로 삼아 미혼에서 혼인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논의가 많지는 않다(이상림, 박중서, 안세아, 2012).

혼인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등)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사회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혼에서 혼인으로의 혼인이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에 관한 그간의 국내 연구들은 상당수가 초혼연령, 혼인율 등 단편적인 경향 분석 정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개인(또는 가구) 단위의 분석을 통해 혼인이행을 살피고자 한 시도는 그 수가 적었다(이상림, 2013). 청년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혼인이행을 둘러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차원에서의 혼인이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혼인을 기피하는 'N포 세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혼인의 지연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일한 연도에 태어나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음 마주하는 거액의 부채'가 될 가능성이 큰 '학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그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혼인지연 가능성(또는 혼인이행 속도의 차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으며(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5년을 기준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액수는 각각 13,705억원과 7,549억원(한국장학재단, 2016)에 달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에 따른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공론화되면서 고등교육단계에서 필요한 학자금 조달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인 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논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감에 비해서도 그 연구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배호중, 박건표, 2016).

이에 현재의 청년층이 직면한 대표적인 어려움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을 연결하여 살펴보고,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혼인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분석자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어 IV장에서는 학자금 대출액의 차이에 따른 '대학졸업 후 혼인이행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V장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이론적 논의

#### 가. 자산효과이론

혼인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비교적 먼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과정임이 자명하다. 혼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언제 혼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된 후에 혼인을 실행하게 될 것이며 이 같은 판단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혼인의 결정에 있어 신뢰와 사랑, 상대방의 성격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지만(이삼식 등, 2015) 부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 또한 혼인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혼인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혼인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부(富)의 유량 개념인 소득(본인 및 배우자의 미래의 기대소득 수준도 포함)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언제 결혼할 것인지에 대한 ‘혼인시점 결정에 있어서는 해당 시점에서의 부의 저장 개념인 자산(또는 부채)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혼인비용(결혼식 및 혼수비용 및 주거비 마련 등)을 감안한다면 혼인시기는 ‘혼인 및 혼인 이후를 위한 자산이 어느 정도 구축된 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혹은 부(-)의 자산으로서의 ‘부채)은 개인이나 가구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에 비해 자산은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나타내는 더 안정적인 지표로 기능할 수 있으며, 축적된 구매력을 나타내는 잣대가 될 수 있다(Oliver & Shapiro, 1990). 동시에 자산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과 가정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도 일조한다고 하였다(Yadama & Sherraden, 1996; 김자영, 2017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자산보유는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산의 증가

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부채가 존재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Han & Hong, 2011)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 및 가정의 안녕감을 유지하거나 이를 높이는데도 자산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Dew, 2007; Rothwell & Han, 2010; Han & Rothwell, 2014). 특히 청년층에게 자산은 집이나 차량의 구매를 가능케 하고,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지속적인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Beverly, 2013), 미래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도록 기능한다(Zhan, 2006; Scanlon & Adams, 2009; Elliott, Chowa & Loke, 2011; Ansong et al., 2015; 이종아, 한창근, 2015에서 재인용).

혼인결정 과정에서 자산의 축적 정도는 상대방에게 매력요소로 발산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을 앞둔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지 않으며, 취업기간이 길지 않아 많은 액수의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산축적 경험은 단순히 소비의 억제라는 측면을 넘어 미래 지향적 생활습관을 보여주는 잣대로 기능할 수도 있다. 반대로 상당량의 부채의 존재는 개인의 높은 소비성향이나 현재 지향적 생활습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방에게 있어 혼인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채는 차입자가 미래의 특정 날짜 또는 특정 기간까지 대출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책임으로 정의되는데(OECD, 2014, p.60) 가계부채가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고, 생애전반의 소비를 평활화시키기도 함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유소이, 박주영, 2014; 채수복, 2015). 그러나 대출을 통해 생성된 부채는 궁극적으로는 갚아야만 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은 약정기간 동안 부채상환에 경제적 자원을 할애해야만 한다. 따라서 부채는 이를 다 갚기 전까지 직접적으로는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는 부채에 따라 증가된 재정적 압박을 통하여 개인의 안녕감과 부정적으로 연관된다(박정민, 오욱찬, 구서정, 2017). 주로 현시적, 단기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대출의 잠재적 효용은 재정적 긴축 압력이나 채무에 대한 상환 부담으로 상쇄되어 오히려 개인의 안녕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Pearlin, 1989; Berger, Collins & Cuesta, 2016; 박정민, 오욱찬, 구서정, 2017에서 재인용)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생활해 나가기에 적합한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이 선 이후에 결혼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주저지 마련 등 혼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불확실성에 따른 미래의 위험이 미혼 상태보다는 기혼 상태에서 보다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할 만한 경제적 자원이 축적되었을 때 결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청년층에게 있어 중요한 미래 계획 중 하나인 결혼에 대해 부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부채의 원인이 과도한 씀씀이나 현재 지향적 소비패턴과 같이 해당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이 상당부분 가구배경에 있다면 혼인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사결정을 낳기 보다는 ‘혼인지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어느 정도 부채를 줄인 후 또는 부채를 갚을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후에 혼인을 하게 될 것이며 ‘학교졸업→노동시장 이행→혼인→출산’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생애과정 상의 규범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한국에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이들은 혼인 및 출산의 지연과 이에 따른 출산력의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 나. 혼인에 대한 의사결정

혼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1970년대 들어 Becker, Schultz 등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허경옥, 2011; 전효연, 2015). 이들에 의하면 혼인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간주되는데 각 개인이 독신상태로 남을 때 보다 가구 내 노동특화 및 분업, 소득 결합, 공동 비용 분담 등 혼인을 통해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면 혼인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득의 크기, 교육수준, 상대적 임금차이 등을 제시하였다(이상현, 이상호, 2011).

Becker(1973)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혼과 미혼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 결혼시장 탐색모형은 결혼의 지연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Becker et al., 1977; Oppenheimer, 1997; 이상현, 이상호, 2011; 전효현, 2015). 이는 경제학의 직업탐색이론을 결혼시장에 적용한 것인데 각 개인은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일종의 유보가치를 정하게 된다. 이후 본인이 판단한 유보가치에 비해 높은 가치를 제시하는 상대가 있는 경우 혼인을 결정하게 되고 그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상대와는 혼인을 하지 않게 된다.

결혼시장 탐색모형 하에서 본인의 유보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각 개인은 불확실성에 따라 자신의 유보가치를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원인은 일시적인 요인과 영구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황성환, 2014) 혼인시장에서의 일시적인 불확실성은 결혼상대방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에서 기인하며, 이는 정보의 탐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영구적인 불확실성의 경우 혼인에 따른 경력단절 및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 가정불화, 이혼 등의 위험을 꼽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부채)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보가치의 분산이 커질 가능성이 높는데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고려하게 되면 자신의 유보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탐색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전효연, 2015).

결국 학자금 대출(부채)은 그 자체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으며, 혼인에 필요한 비용조달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 혼인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채는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혼인시장에서의 유보가치 판단 등에 더 많은 탐색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어 혼인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그간 이루어진 혼인을 둘러싼 실증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교육수준, 취업, 소득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성별에 따라 '혼인 시기'나 '혼인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핀 경우가 많다(오지혜, 임정재, 2016). 동일한 특성이라 할지라도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이 같은 차이를 논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혼인·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좀처럼 완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는 여성에게 혼인은 여성에게 더 큰 기회비용이 수반되는 일로 간주되기도 한다.

혼인 이후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일정 정도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남성의 경우 경제적 자립과 높은 수입 잠재력이 혼인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

다. 때문에 남성들의 경우 직업이 안정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결혼을 미루려는 경향 (Oppenheimer, 1997)이 관찰되기도 하며 높은 지위에 오른 이들의 혼인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Teachman, Polonko & Leigh, 1987) 일반적으로 취업 여부나 높은 수입(또는 이에 대한 높은 잠재력)은 전반적으로 혼인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Sassler & Schoen, 1999; South, 2001; Xie, Raymo, Goyette & Thornton, 2003; 안태현, 2010; 이상림, 2013; 오지혜, 임정재, 2016).

반면, 여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적자본과 결혼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오지혜, 임정재, 2016).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혼인에 따른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부담 등이 학업과의 병행이나 일·가정 양립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 높은 교육수준은 여성의 혼인시기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인수, 1994; Goldscheider & Waite, 1986; Thornton, Axinn & Teachman, 1995; 이삼식, 2006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혼인 이후 빈번한 경력단절 등과 같이 혼인의 기회비용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현실에서 고학력 여성들은 혼인을 지연 또는 기피하기도 하며<sup>1)</sup>, 높은 학력은 여성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혼인보다는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켜 혼인을 지연시키거나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최세은, 옥선화, 2003;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김두섭, 2007; 우해봉, 2009; 유홍준, 현성민, 2010). 대학 진학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질적 차이(학벌)에 대한 경쟁의 양상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 나은 일자리를 획득할 가능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세칭 '명문대로 대변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학벌 또한 여성의 혼인을 지연시키거나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게 하는 유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sup>2)</sup>.

- 
- 1)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가능성이나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취업과 혼인 간의 상충관계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일자리의 취업은 혼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2) 상대적으로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 또는 학벌과 관련해 결혼시장 미스매치 가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승혼(hypergamy) 관습에 의해 여성의 선호에 맞는 배우자를 찾지 못해 결혼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보다 같거나 높은 유형의 결혼이 보편적인데 여성의 전반적인 고학력화 및 학벌의 상승은 그러한 유형의 결혼을 성사시킬 가능성을 줄여 혼인이 줄어들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Raymo & Iwasawa, 2005; 권오재, 2017에서 재인용).

연령 또는 연령구분이 미치는 영향 또한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나타날 수 있다. 1983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구분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은기수, 1995)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이상림, 2013). 혼인에 대한 ‘한계연령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 속에서 혼인 연령에 대한 한계기준은 특히 여성에게 여전히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이상림, 2013)<sup>3)</sup>. 한국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후 결혼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감안한다면 졸업의 지연(=긴 재학기간)은 특히 여성에게 대학졸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개인의 재무상태와 혼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핀 연구는 고용상태(또는 소득)나 교육 등 인적자본의 축적정도와 혼인과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무상태와 혼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산의 축적정도가 많을수록 혼인확률이 높거나 혼인을 빨리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부채가 많으면 혼인 가능성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늦게 혼인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Edin, 2000; Mamun, 2005; Schneider, 2011; Dew & Price, 2011).

보다 세부적으로는 혼인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무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존재하는데 혼인을 즈음한 무렵의 재무상태에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일 수 있는 학자금 대출(액)에 초점을 두고 이에 따른 혼인이행의 차이를 살핀 연구가 비교적 최근 들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학자금 대출액이 많거나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경우 혼인을 늦게 하거나 혼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Gicheva, 2011, Anderson, 2013; Addo, 2014) 학자금 대출의 부담 때문에 혼인을 미루고 등거형태로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Smock, Manning & Porter, 2005).

이와 함께 재무상태는 개인의 행복도나 결혼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South, 2001; Copur & Eker, 2014; Berger, Collins & Cuesta, 2016) 생애 주기 변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도 한다. 부채는 이혼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며(Dew, 2011; 양은모, 배호중, 2017), (주택)자산은 자녀출산을 촉진시킨다는 실증연구결과(Simon & Tamura, 2009; 배호중, 한창근, 2016)도 존재한다.

3)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혼인연령이 여성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미혼 한계 연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여성들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추측된다(이상림, 2013).

이처럼 부채 또는 자산과 같은 개인의 재무상태는 안정감,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혼인, 출산, 이혼 등과 같은 생애주기의 변화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인의 재무상태와 혼인, 출산, 이혼 등과 같은 생애주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 간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핀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혼인을 즈음하여 혼인당사자가 축적한 자산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여긴 탓도 있겠지만 혼인의 지연 또는 저출산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사회문제가 된 비교적 최근을 기준으로 혼인이 빈번히 일어나는 연령층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 심층 통계자료가 부족한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배호중, 한창근, 2016).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출산의 절대 다수는 혼인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이삼식 등, 2010) 혼인의 지연에 따른 출산의 연기는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Toulemon, 2001; 전광희, 2002). 출산가능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그만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늦어져 그 자체로 혼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대학졸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따른 부채(학자금 대출)의 부담 때문에 졸업 후에도 혼인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두고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과 혼인지연 간의 관련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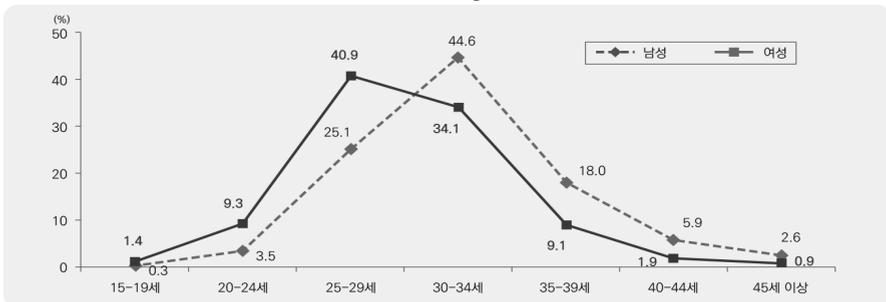
#### 1. 이용 자료

학자금 대출이 대학졸업 후 혼인이행 시기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KEEP은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씩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구와 재학 중인 학교(담임, 학교행정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학생의 가족 구성원과 그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실태, 교육효과,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본 연구에서는 KEEP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1~11차 년도(2004~2014년) 자료를 가지고 대학재학 중 학자금 대출 경험이나 학자금 대출액의 정도에 따른 혼인시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KEEP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설문문항이 6차 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는데<sup>4)</sup> 이 시점은 전문대 진학자들의 상당수가 학교를 졸업하여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문항에 대한 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 이들을 제외한 4년제 대학졸업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4년제 대학진학자들 중 남학생의 상당수는 재학 중 군복무를 경험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졸업 및 취업이 여학생들에 비해 늦어 11차 조사 시점까지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남학생들의 혼인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결혼에 있어서의 연령규범은 혼인 이후의 출산연령 등과도 결부되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은기수, 1995) 여성의 혼인은 특정연령대에 남성에 비해 더욱 집중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sup>5)</sup>. 이를 감안한다면

- 4) 6차년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재수를 경험하지 않고 조기졸업을 한 경우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제로 KEEP 5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현재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 5) 실제로 2016년을 기준으로 남녀의 초혼연령별 혼인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초혼연령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분포(skewed to the right)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통계청(2017d), 인구동향조사(2016).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한 학자금 대출에 따른 혼인 지연의 가능성이 여학생에게 응축된 기간 동안 보다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며, 앞서 제시한 자료의 제약과 더불어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 507명을 최종 표본으로 구성하여 학자금 대출에 따른 혼인시기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2. 변수 구성 및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시점과 관련된 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자금 대출액(부채)의 영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월(月) 단위로 측정된 '대학졸업~혼인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출여성의 개인특성과 대학 재학 중 경험 그리고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개인별로 비교가능한 혼인시기를 설정함에 있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를 경험할 수도 있고,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재학 중 휴학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을 피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동일한 연도에 출생한 코호트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대학졸업시점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학 중에는 혼인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우리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혼인연령을 비교하는 것 보다는 대학졸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기간 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졸업'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졸업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혼인의 발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응답자들이 응답한 졸업시점(주로 2월과 8월)을 기준으로 자기보고 방식을 통해 조사된 혼인시점까지의 기간을 월(月) 단위로 환산하여 '대학졸업 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혼인시점-대학졸업시점)'을 산출하고 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졸업 후 최종조사시점까지 혼인을 한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혼인을 한 표본의 경우 졸업 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계상하였으며, 최종조사시점까지 혼인을 경험하지 집단의 경우 대학졸업시점~최종조사시점 간의 기간을 계상한 후 중도절단된 변수임을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설정한 ‘대학졸업 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변수는 청년층의 혼인을 둘러싼 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변수들을 고려하였는데, 가구특성, 출신대학 및 재학 중 경험 그리고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몇몇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가구특성 중 부모학력은 연단위로 환산한 부모의 학력 평균을 투입하였으며 가구소득은 개개인의 대학졸업시점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고교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투입하였다. 출신대학의 특성 중 대학순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수의 기관에서 매년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KEEP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한 2005년의 중앙일보 대학평가(<http://univ.joongang.co.kr/>) 자료를 기준으로 4개의 집단(1~10위, 11~20위, 21~30위, 기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세부전공을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0위권 이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전공은 3개의 대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을 구분 짓기 위한 가변수를 생성하였으며, 학교를 마친 후에 결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고려하여 학생신분이 지속되는 ‘대학원 진학’을 구분짓는 변수를 함께 모형에 포함시켰다.

대학재학 중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학 이후 졸업 이전까지(주로 2차년도부터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응답하기 이전의 자료를 이용해) 자격증 취득경험,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에 대해 각각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하는 가변수를 투입하였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휴학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졸업시점(재학기간)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대학재학기간도 함께 고려하였다. 휴학에 따른 대학재학기간의 증가는 졸업연령의 증가와도 직결되어 있다. 혼인에 있어 연령규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국사회에서(은기수, 1995) 재학기간 연장은 졸업 후 혼인을 서두르게 하는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졸업 후 첫 직장 특성과 관련해서는 KEEP에 나타난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학졸업일을 기준으로 이전 5개월 이내(즉 마지막 학기 시작 이후)의 시점부터 얻은 일자리(아르바이트 제외)를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로 판단하였다. 임금수준 등 금액과 관련한 변수들은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후 이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첫 직장의 질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잣대로 ‘괜찮은 일자리’ 여부를 모형에 포함시켰는데 혼인이나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혼인 이후 경력유지의 가능성이 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제공은 특히 여성들에게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된 경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활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황여정과 백병부(2008), 백병부와 유백산(2011), 이필남과 김경년(201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학자금 대출 여부를 비롯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간(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 학기 수)과 재학 중 받은 학자금 대출의 총액(분석에서는 자연로그 형태를 취해서 이용) 등의 변수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표 1>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생성한 변수들의 기초통계값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고 한 대학졸업 후 혼인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도록 하자. KEEP 1~11차년도 자료를 통해 구축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 507명 중 19.7%에 달하는 100명의 여성이 해당기간동안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인을 경험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대학졸업 후 41.1개월(≒3.43년)이 경과한 시점에 혼인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혼인이행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변수들의 통계치를 살펴보기로 하자. 부모의 평균학력은 11.91년으로 평균적으로 고교 졸업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95.0%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에서의 전공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교육계열 졸업자가 절반이 조금 넘는 52.9%를 차지하였고, 공학·자연계열 전공자들은 26.2%였다. 1~10위권에 속하는 대학졸업자가 5.3%였으며, 11~20위와 21~30위로 조사된 대학졸업자가 각각 6.1%와 10.7%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들은 대학졸업에 56.1개월(≒4.7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44.6%의 학생들은 대학 재학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와 함께 19.3%의 학생들은 재학 중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있었다. 대학졸업 후 갖게 된 첫직장과 관련해서는 8.1%는 앞에서 정의한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직장의 임금수준은 131만원이었다.

표 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4년제 대학졸업 여학생 대상)

변수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 빈도, %)	
종속변수	혼인경험 여부	혼인경험=1, 그 외=0	100 (19.7%)	
	혼인이행 기간(개월)	졸업 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개월)	41.120	15.602
개인 및 가구특성	부모학력(년)	부모학력의 평균(년)	11.910	2.443
	ln(가구소득)	고교졸업 당시 로그 가구소득	5.679	0.475
출신대학 특성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 유무	481 (94.9%)	
	전공1: 인문·사회·교육	대학전공1: 인문·사회·교육계열	268 (52.9%)	
	전공2: 공학·자연	대학전공2: 공학·자연계열	133 (26.2%)	
	전공3: 기타	대학전공3: 그 외의 전공계열	106 (20.9%)	
	대학원 진학여부	대학원 진학=1, 그 외=0	30 (5.9%)	
	대학순위: 1~10위	대학순위: 1~10위 포함 여부	27 (5.3%)	
	대학순위: 11~20위	대학순위: 11~20위 포함 여부	31 (6.1%)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	대학순위: 21~30위	대학순위: 21~30위 포함 여부	54 (10.7%)	
	대학순위: 기타	대학순위: 기타	395 (77.9%)	
	대학재학기간	대학졸업까지의 소요 기간(월)	56.112	12.365
	자격증 취득 경험	재학 중 자격증 취득 경험=1, 그 외=0	226 (44.6%)	
첫 직장 특성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재학 중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1, 그 외=0	98 (19.3%)	
	괜찮은 일자리여부	첫 직장의 괜찮은 일자리 여부(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정규직)	41 (8.1%)	
	ln(첫직장 임금)	로그 첫직장 임금	4.627	1.107
학자금 대출	첫직장 임금(만원)	첫직장 임금(만원)	130.980	56.903
	학자금 대출 경험	학자금 대출 경험=1, 그 외=0	174 (34.3%)	
	학자금 대출기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기의 수	1.278	2.113
	학자금 대출액 더미1	학자금 대출액 총액: 0만원(학자금 대출 경험 없음)	333 (65.7%)	
	학자금 대출액 더미2	학자금 대출액 총액: 1~700만원 이하	62 (12.2%)	
	학자금 대출액 더미3	학자금 대출액 총액: 700~1,500만원 이하	64 (12.6%)	
	학자금 대출액 더미4	학자금 대출액 총액: 1,500만원 초과	48 (9.5%)	
	ln(학자금 대출액)	로그 학자금 대출액	2.341	3.273
학자금 대출 총액(만원)	학자금 대출 총액(만원)	410.381	751.638	

N=507

주: '혼인이행 기간(개월)'의 경우 N=100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분석에 활용한 표본의 34.3%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평균 1.28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범주별로는 7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경우가 12.2%였으며 12.6%는 학자금 대출액의 누계가 700만원 이상~1,500만원 범주에 속했다. 9.5%는 1,500만원을 넘는 액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IV.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 1. 대학졸업 후 혼인이행 기간에 대한 생존자 함수

여기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대학졸업 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존자 함수(survivor function)를 확인하기 위해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Kaplan-Meier survival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기간에 따른 혼인이행에 대한 위험률을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라 혼인이행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aplan-Meier 추정방법은 특정 상태의 변화 발생(=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승법극한(product-limit)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상태의 변화가 해당 측정 시점( $t$ )을 지나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한준, 2005; 오지혜, 임정재, 2016에서 재인용).

$$G(t) = l: \tau_l < t \left( 1 - \frac{E_l}{R_l} \right) \dots \dots \dots <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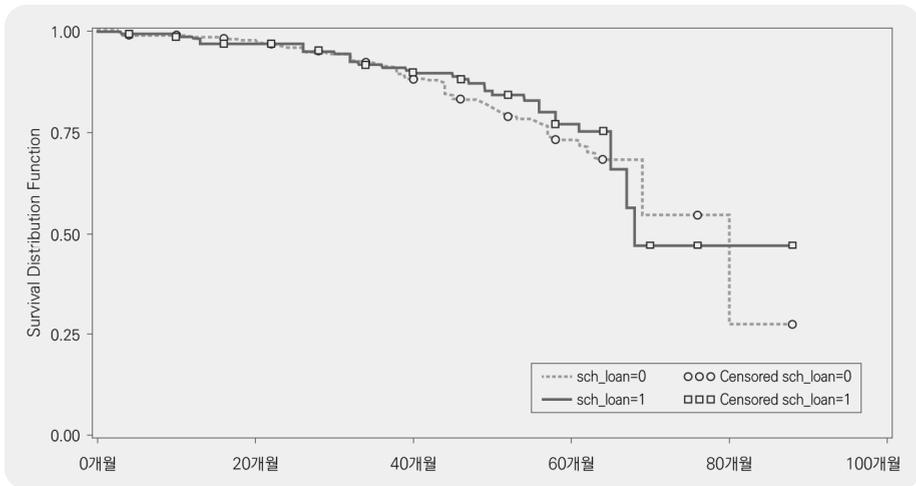
( $E_l$ : 시점  $\tau_l$ 에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의 수,  $R_l$ : 시점  $\tau_l$ 에 위험집합에 속해있던 경우의 수)

Kaplan-Meier 방법은 관찰된 생존 시간을 크기순으로 순서대로 나열하여 계산되며, 사건(event)이 관찰(여기서는 혼인을 한 경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 시점마다 생존 확률을 산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月) 단위로 계산된 대학졸업 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생존기간으로 이용되며, 표본이탈 등의 사유로 우측절단이 발생한

표본(최종조사 시점까지 미혼상태에 있는 경우)의 경우 절단된 변수임을 구분 짓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통해 구분하였다.

[그림 1]은 학자금 대출 경험여부에 따라 대학졸업 후 혼인으로의 이행 기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 1]의 세로축은 생존확률(즉, 미혼상태를 유지할 확률)을 의미하고, 가로축은 졸업 후 경과기간(月)을 의미하며, 학자금 대출 경험이 없는 학생(=점선)들과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학생(=실선)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혼인이행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졸업 이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혼인을 경험한 이들이 누적되어 가는 가운데 졸업 후 60개월(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점선으로 나타낸) 학자금 대출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전반적으로 더 빨리 혼인을 경험하여 이들의 Kaplan-Meier 곡선이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서 점선으로 나타낸 학자금 대출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실선으로 나타낸 재학 중 학자금 대출경험이 있는 집단의 혼인이행이 보다 활발해져 졸업 후 80개월이 경과할 무렵에는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집단의 K-M 곡선이 오히려 아래쪽에 위치하기도 한다.

그림 1. 학자금 대출 여부에 따른 혼인이행 기간(Kaplan-Meier Curve)



이처럼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졸업 후 혼인이행 시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는 졸업 후 일정 시점까지는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이들의 혼인이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정기간 이후에는 오히려 그들의 혼인이행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두 집단 간 K-M 곡선이 교차되기도 하는 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일관된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 Log-Rank 검정을 통해 집단 간 K-M 곡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0$ ).

혼인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듯 대학졸업과 혼인이라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간격(time interval)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앞에서 살펴본 Kaplan-Meier 추정방법은 집단별로 범주를 나누어 해당 사건발생 기간에 대해 단순 비교 정도에 그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각 계층별 사건발생에 대한 시간간격 차이를 직관적으로 한눈에 살펴보기에는 용이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속성이 ‘혼인’이라는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고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속성이 특정한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의 하나로 Cox의 비례위험 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측 절단된 표본이 존재할 때에도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치성을 가진 추정량 얻을 수 있는데(박재빈, 2006; 전현중 등, 2009; 황창하, 심주용, 2012) 본 연구에서는 최종 조사시점까지 혼인한 경험이 없는 우측절단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일치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Cox의 비례위험 모형에 이용되는 해저드 함수  $h(t)$ 는 사건( $T$ )이 특정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관찰하고자하는 사건(event)이 특정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며,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x_i$ )은 시간변화에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김양진, 2013, p.20). 본 연구에서는 미혼 상태에 있다가 혼인상태로 이행(탈출)을 하는 경우가 해저드에 해당하며 특정시점( $t$ )에서 혼인으로 이행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을 아래의 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leq t + \Delta t \mid T > t]}{\Delta t} \dots\dots\dots <식 2>$$

이는 또한 아래의 식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는데 사건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벡터( $x$ )를 가지는 관측치의 특정시점( $t$ )에서의 해저드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전현중 등, 2009). 혼인이행 기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앞서 변수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한 설명변수들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학자금 대출 여부를 포함시킨 [모형 I]과 학자금 대출 기간(=대출 학기 수)를 포함시킨 [모형 II] 그리고 학자금 대출 총액을 넣은 [모형 III]과 [모형 IV]의 네 가지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h(t) = h_0(t) e^{\beta_1 x_1 + \dots + \beta_k x_k} \dots \dots \dots \text{<식 3>}$$

모형 <표 2>와 <표 3>의 분석결과는 ‘미혼→혼인’으로의 이행을 살펴본 것이므로 (+)의 계수값은 혼인으로의 이행에 대한 위험배율(hazard ratio) 또는 상대적 위험(relative risk) 확률이 높음을 나타내며, (-)의 계수값은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학자금 대출 여부를 모형에 포함시킨 <모형 I>의 결과를 살펴보면 년 단위로 특정된 부모의 학력변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졸업 후 혼인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1년 증가할수록 10.0%( $=1 - e^{-0.105}$ ) 가량 혼인확률이 낮았으며 고교졸업 당시의 가구소득이나 형제자매 유무 변수의 경우 (+)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출신대학의 특성 중 전공과 관련해서는 전공 따른 혼인이행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대학의 순위에 따른 혼인이행 가능성의 차이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확률수준에서 혼인이행 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학 재학 중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우선 대학 재학기간이 길수록 혼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재학기간이 1개월 증가할 때마다 혼인이행 가능성이 1.055배( $=e^{0.053}$ )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재학기간의 증가는 연령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혼인에 있어 연령규범(또는 만혼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한국에서 지연된 졸업기간(또는 증가한 재학기간)만큼 혼인을 서두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재학 중 자격증 취득 경험 변수를 살펴보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는데 자격증 취득경험이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혼인이행가능성이 1.506배( $=e^{0.409}$ ) 가량 높았다. 현재 상당수의 청년층이 응시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의 경우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이에 따른 혼인지연의 가능성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를 지지할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대학졸업 후 첫 직장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임금수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괜찮은 일자리 여부 변수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를 갖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혼인이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를 갖게 된 경우에는 미취업 또는 괜찮은 일자리 이외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비해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2.48배( $=e^{0.909}$ )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 경험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4년제 대학졸업 여학생들의 경우 이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대학졸업 후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혼인의 가능성이 37.2%( $=1-e^{-0.449}$  배)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대신 학자금 대출기간(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기의 수)를 포함시켜 분석한 [모형 II]에서는 통제변수의 계수값이나 유의도가 [모형 I]에서의 결과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설정한 학자금 대출기간 변수의 경우 (-) 값을 나타내어 학자금 대출기간이 대학졸업 후 혼인이행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를 지지할만한 결과값은 아니었다.

표 2. 학자금 대출 여부 및 학자금 대출기간에 따른 대학 졸업 후 혼인이행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변수명	모형 I (대출 여부 포함 모형)			모형 II (대출 기간 포함 모형)			
	추정값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값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개인 및 가구특성	부모학력(년)	-0.099**	0.043	0.906	-0.093**	0.043	0.911
	고교졸업시 ln(가구소득)	0.401*	0.237	1.494	0.400*	0.237	1.492
	형제자매 유무	0.373	0.517	1.453	0.365	0.517	1.440
출신 대학특성	전공1: 인문·사회·교육	0.010	0.270	1.010	0.015	0.269	1.015
	전공2: 공학·자연	-0.009	0.311	0.991	0.001	0.310	1.001
	전공3: 기타	-	-	-	-	-	-
	대학원 진학여부	-0.618	0.543	0.539	-0.633	0.544	0.531
	대학순위: 1~10위	-1.338*	0.743	0.262	-1.358*	0.746	0.257
	대학순위: 11~20위	-0.253	0.487	0.777	-0.219	0.489	0.803
	대학순위: 21~30위	-0.257	0.342	0.773	-0.256	0.341	0.774
재학 중 취업준비	대학순위: 기타	-	-	-	-	-	-
	대학재학기간	0.053***	0.012	1.055	0.053***	0.012	1.054
	자격증 취득 경험	0.409**	0.209	1.506	0.393*	0.209	1.481
첫직장 특성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0.507*	0.287	0.602	-0.476*	0.286	0.621
	ln(첫직장 임금)	0.033	0.119	1.033	0.034	0.119	1.035
학자금 대출	괜찮은 일자리여부	0.909**	0.387	2.482	0.898**	0.387	2.455
	학자금 대출 경험	-0.449**	0.226	0.638	-	-	-
모형검정 통계량	학자금 대출기간	-	-	-	-0.091*	0.055	0.913
	-2Log L		1066.594			1067.748	
	AIC		1096.594			1097.748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SBC		1135.672			1136.826	
	Likelihood Ratio		43.006***			41.851***	
	Score		43.253***			42.038***	
	Wald		43.015***			41.857***	
	N		507			507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3>에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대출액의 측면으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분석에서도 <표 2>와 동일한 통제변수를 이용한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설계한 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학자금 대출 총액의 범주를 ①0만원(학자금 대출 경험 없음)~④1,500만원 초과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모형 III]과 학자금 대출 총액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한 금액을 변수로 포함시킨 [모형 IV]를 통해 혼인이행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의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III]과 [모형 IV]에서도 앞선 [모형 I], [모형 II]와 전반적으로 통제변수의 계수값이나 유의도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교육수준, 대학재학 기간, 자격증 취득 경험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가 혼인이행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였으며, 전공이나 대학의 순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들 변수의 영향력을 지지해주는 결과가 나타내지는 않았다.

학자금 대출액의 총액을 몇 가지의 범주로 살펴본 [모형 III]에서는 비록 학자금 대출액의 범주에 따라 혼인이행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범주의 계수값이 (-)의 부호를 나타내었으며, 해당 계수값들의 절대값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기준변수로 삼은 학자금 대출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해) 많은 액수의 학자금 대출은 혼인이행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개연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모형 IV]의 분석결과를 통해 뒷받침된다. 앞선 모형들과 동일한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로 자연로그를 취한 형태의 학자금 대출 총액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IV]에서 해당 변수의 값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학자금 대출액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연로그 형태의 학자금 대출 총액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은  $6.3\%(=1-e^{-0.065})$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연령규범(또는

표 3. 학자금 대출액에 따른 대학 졸업 후 혼인이행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변수명		모형 IV(대출액 더미 포함 모형)			모형 III(대출액 포함 모형)		
		추정값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추정값 ( $\beta$ )	표준오차	Hazard ratio
개인 및 가구특성	부모학력(년)	-0.094**	0.044	0.911	-0.097**	0.043	0.907
	고교졸업시 ln(가구소득)	0.397*	0.237	1.487	0.400*	0.237	1.491
	형제자매 유무	0.405	0.518	1.499	0.384	0.517	1.468
출신 대학특성	전공1: 인문·사회·교육	-0.024	0.271	0.976	0.005	0.270	1.005
	전공2: 공학·자연	-0.022	0.313	0.979	-0.010	0.311	0.990
	전공3: 기타	-	-	-	-	-	-
	대학원 진학여부	-0.650	0.546	0.522	-0.624	0.544	0.536
	대학순위: 1~10위	-1.370*	0.746	0.254	-1.340*	0.744	0.262
	대학순위: 11~20위	-0.234	0.487	0.792	-0.252	0.487	0.777
	대학순위: 21~30위	-0.257	0.341	0.774	-0.257	0.341	0.773
	대학순위: 기타	-	-	-	-	-	-
재학 중 취업준비	대학재학기간	0.053***	0.012	1.055	0.053***	0.012	1.055
	자격증 취득 경험	0.420**	0.209	1.521	0.410**	0.209	1.507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0.501*	0.287	0.606	-0.504*	0.287	0.604
첫직장 특성	ln(첫직장 임금수준)	0.038	0.118	1.038	0.032	0.119	1.033
	괜찮은 일자리여부	0.908**	0.389	2.480	0.908**	0.387	2.480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액 더미1 (학자금 대출 경험 없음)	-	-	-	-	-	-
	학자금 대출액 더미2	-0.198	0.299	0.820	-	-	-
	학자금 대출액 더미3	-0.580*	0.352	0.560	-	-	-
	학자금 대출액 더미4	-0.713*	0.433	0.490	-	-	-
	ln(학자금 대출액)	-	-	-	-0.065**	0.033	0.937
모형 검정 통계량	-2Log L		1065.204		1066.676		
	AIC		1099.204		1096.676		
	SBC		1143.492		1135.753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Likelihood Ratio		44.396***		42.924***		
	Score		44.048***		43.125***		
	Wald		43.704***		42.901***		
	N		507		507		

\*:  $p < 0.1$ , \*\*:  $p < 0.05$ , \*\*\*:  $p < 0.01$

만혼에 대한 부담)이 일정부분 존재하여 지연된 졸업기간(또는 증가한 재학기간)만큼 혼인을 서두를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혼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학자금 대출액이 많을수록 혼인이행의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V. 결론

혼인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등)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사회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혼에서 혼인으로의 혼인이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혼인을 살핀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원에서 혼인이행을 살펴보고자 대표성있는 통계자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혼인이행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혼인을 기피하는 'N포 세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혼인의 지연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이나 이수율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할 만큼 보편화되었지만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학자금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청년층이 '처음 마주하는 거액의 부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청년층이 직면한 대표적인 어려움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을 연결하여 학자금 대출에 따른 혼인지연 가능성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의 34.3%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1.28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범주별로는 7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대출받은 경우가 12.2%였으며, 12.6%는 700만원~1,500만원

을, 1,500만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도 9.5%에 달했다.

대학졸업일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이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가구특성, 출신대학 및 재학 중 경험 그리고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모형을 통해 '대학졸업 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月)'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만혼에 대한 부담이 일정부분 존재하여 지연된 졸업기간(또는 증가한 재학기간)만큼 혼인을 서두를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혼인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함께 살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혼인이행의 가능성이 낮았으며, 학자금 대출액이 많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 또한 낮게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혼인지연의 가능성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혼인이행에 대해 서만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학자금 대출 부담이 혼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 출산 등 생애주기 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출산, 자녀양육 문제 등 국가인적자본 활용측면에서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이를 통한 직접 대출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등 상환조건이나 대출금리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있어 왔지만(윤정열, 2014) 여전히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위한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졸업 후 머지않은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일부는 학자금 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혼인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성실채무이행자 등에 대해서는 상환방식이나 채무조정 등을 통해 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소득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로 부담을 이연(移延)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양은모, 배호중, 2017).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한 학자금 대출의 기준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수준이 높지 않은 가구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가구의 경제적 격차가 세대를 넘어 자녀세대의 혼인가

능성에서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폐쇄성이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수준이나 교육 등을 기준으로 동질혼(homogamy)의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양극화와 세대 간 계층재생산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석재은, 노혜진, 2013)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비용부담의 어려움이 계층화를 유발하고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경감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보다 투명한 학교재정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 억제와 함께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부가적 비용(주거비용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대학생들이 줄어든 비용 부담 하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정책 이외에 혼인, 출산과 같은 청년층의 보다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을 위해서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엇보다도 괜찮은 일자리의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소득, 그 자체도 혼인(및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소득보다는 혼인 및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이로 인한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혼인이행을 촉진하는 보다 분명한 요인임을 재고해본다면 괜찮은 일자리 확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혼인이행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당한 어려움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대학졸업~(군입대)~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충분히 조사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따른다는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금리나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상환 과정이나 이에 대출에 따른 의사결정에 차이가 생겨날 것인데 자료의 제약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대출기간이나 금액 또한 실제 금융거래를 통한 자료가 아닌 개인의 회고자료를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혼인을 결정하고 실제로 이를 행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학 재학 중의 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의사 결정 또한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sup>6)</sup>. 이와 함께 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의 경우 최대 첫 조사가

이루어진(고3, 1차년도 코호트)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주로 만28세, 11차년도 코호트)까지만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이른 혼인을 한 집단들에 대한 분석일 수 있으며, 이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상당한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

분석의 목적이 된 종속변수와 관련해서는 ‘혼인시기’ 뿐만 아니라 ‘혼인 가능성(예컨대 특정 연령까지의 혼인이행 여부)’ 또한 혼인을 둘러싼 분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살피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보다 오랜 기간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진 후 남성들까지도 포함시킨 분석을 실시한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제 혼인시기 뿐만 아니라 혼인의향이나 희망 혼인연령에 대한 분석까지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혼인결정 과정에 있어서 학자금 대출의 부담감이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향후에도 혼인이행을 둘러싼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청년층의 혼인을 둘러싼 정책 개발에 실효성 높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호중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학사 및 석사를 마쳤으며,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자산과 삶의 질, 청소년복지이며, 현재 자산복지, 사회복지정책분석 등을 공부하고 있다.

(E-mail: baseball@kwidimail.re.kr)

한창근은 서울대학교 학사 및 석사를 마쳤으며,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사회사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분석, 자산과 삶의 질, 노인복지이며, 현재 사회복지정책분석, 자산과 삶의 질,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chkhan@skku.edu)

- 6) KEEP에서는 4차년도 이후 가구에 대한 별도의 설문을 하지 않으며,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소득과 관련한 설문문항 또한 모든 차수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기에 변화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여건 변화나 특정한 시기(예컨대 학자금 대출을 받을 무렵, 혼인당시 등)의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한 채 고3 당시의 가구소득만을 통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2014.9.9.).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국립국어원. (2015). **눔뜨족, 일자리 절벽, 뇌섹남 ... 사회 현실을 대변하다: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조사 결과 발표**. 2015.3.25. 보도자료 서울: 국립국어원.
-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서울: 집문당.
- 김자영. (2017). **가구주의 장애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pp.57-70.
-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구  
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pp.33-62.
- 박순일, 이삼식, 변용찬, 김승권, 최은영. (2004). **저출산 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박재빈. (2006).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신광출판사.
- 박정민, 오욱찬, 구서정. (2017).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9(2), pp.171-190.
- 박혜경. (2011). 경제위기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3), pp.71-106.
- 배호중, 박건표. (2016). 학자금 대출과 노동시장 이행 성과,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9(3), pp.1-30.
- 배호중,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pp.204-238.
- 백병부, 유백산. (2011). **편입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1(3),  
pp.99-117.
-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 (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석재은, 노혜진. (2013). 동질혼이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성취적 특성 및 부모의 귀속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2), pp.433-459.
- 안태현. (2010).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10(3), pp.35-64.
- 양은모, 배호중. (2017). 신혼가구의 재무상태와 이혼: 부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1), pp.23-53.
- 오지혜, 임정재. (2016).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0(5), pp.203-245.
-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pp.25-50.
- 유소이, 박주영. (2014). 부채부담과 재무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23(1), pp.47-61.
- 유홍준, 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pp.75-101.
- 윤정열. (2014). 대학교육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향: 소득연계식 학자금융자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7(4), pp.89-112.
-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pp.89-117.
-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 간격의 관계. *한국인구학*, 35(6), pp.105-139.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pp.97-140.
- 이삼식, 정경희 등. (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pp.39-71.
- 이상림, 박종서, 안세아. (2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 연계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현, 이상호. (2011).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17(3), pp.131-166.

- 이인수. (1994). 한국 여성의 결혼 전이 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1940, 50년대 코호트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pp.252-261.
- 이종아, 한창근. (2015).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4), pp.75-100.
- 이필남, 김정년. (20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1(2), pp.87-115.
- 전광희. (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pp.305-323.
- 전현중, 류장수, 조장식, 박성익, 김종한. (2009). 누리사업단 대학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2(1), pp.31-56.
- 전효연. (2015). 혼인적령기 청년들의 혼인결정요인 탐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민우, 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잡'의 의미를 묻다-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pp.130-175.
-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24(2), pp.5-27.
- 조희금, 고선강, 어성연. (2009).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일보(2005). 중앙일보 대학평가. <http://univ.joongang.co.kr/>에서 2017.6.19. 인출.
- 채수복. (2015). 가구의 부채 변화가 주택 자산효과에 미치는 영향: 미시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접근. 부동산연구, 25(2), pp.57-70.
- 최새은, 옥선화. (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pp.53-73.
- 통계청. (2016).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16.2.24.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7a). 2016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017.2.22.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7b). 시도별 평균초혼연령(「인구동향조사」, 각년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rvw\\_cd=&list\\_id=A23\\_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rvw_cd=&list_id=A23_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7.6.19. 인출

- 통계청. (2017c).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인구동향조사」, 각년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7.6.19. 인출
- 통계청. (2017d). 초혼연령별 혼인(「인구동향조사」, 20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6&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6&conn_path=I3)에서 2017.12.11. 인출
- 한국장학재단. (2016). 학자금 대출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3](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3)에서 2017.6.19. 인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2004)~11차(2014)년도 조사 사용자 지침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준. (2005). “사건사분석”. 이재열 편.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19-268.
- 허경옥. (2011). 삶의 경제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황성환. (2014). 불확실성이 구직시장의 미스매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황여정, 백병부. (2008). 대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pp.1-23.
- 황창하, 심주용. (2012). 생존자료분석을 위한 혼합효과 최소제곱 서포트벡터기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4), pp.739-748.
- Addo, F. R. (2014). Debt, cohabitation, and marriage in young adulthood. *Demography*, 51(5), pp.1677-1701.
- Anderson, P. (2013). *Postponing the family?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debt and lifecycle transitions*. Unpublished manuscript.
- Ansong, D., Chowa, G. A., & Sherraden, M. (2015). Household assets, academic expectations,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Ghanai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0, pp.101-110.
- Becker, G. 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pp.813-846.

- Becker, G. S., Landes, E. M., & Michael, R. T. (1977).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pp.1141-1187.
-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ger, L. M., Collins, J. M., & Cuesta, L., (2016). Household debt and adult depressive symptom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7(1), pp.42-57.
- Beverly, S. G. (2013). Asset building for and by young peopl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3, pp.52-57.
- Copur, Z., & Eker, 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ssues and marital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 7(5), pp.683-697.
- Dew, J. (2007).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differing roles of assets and consumer debt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1), pp.89-104.
- Dew, J.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consumer debt and the likelihood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2(4), pp.554-565.
- Dew, J., & Price, J. (2011). Beyond employment and income: The association between young adults' finances and marital timing.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2(3), pp.424-436.
- Edin, K. (2000). What do low-income single mothers say about marriage?. *Social Problems*, 47(1), pp.112-133.
- Elliott, W., Chowa, G., & Loke, V. (2011). Toward a children's savings and college-bound identity intervention for raising college attendance rates: A multilevel propensity score analysis. *Sociology Mind*, 1(4), pp.192-205.
- Gicheva, D. (2011). *Does the student-loan burden weigh into the decision to start a famil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Goldscheider, F. K., & Waite, L. J. (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1), pp.91-109.
- Han, C. K., & Hong, S. I. (2011). Assets and life satisfaction patterns among Korean

- older adults: Latent class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2), pp.225-240.
- Han, C. K., & Rothwell, D. W. (2014). Savings and family functioning since the 2008 recession: An exploratory study in Singapore. *International Social Work*, 57(6), pp.630-644.
- Mamun, A. (2005). *The White Picket Fence Dream: Effects of Assets on the Choice of Family Union*. <https://www.mathematica-mpr.com/-/media/publications/pdfs/whitepicket.pdf>에서 2017.12.10. 인출.
- OECD(2014). *OECD Factbook: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liver, M. L., & Shapiro, T. M. (1990). Wealth of a Nation.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9(2), pp.129-151.
- Oppenheimer, V. K.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1), pp.431-453.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3), pp.241-256.
- Raymo, J. M. & M. Iwasawa. (2005). Marriage market mismatches in Japan: An alternative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ducation and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5), pp.801-822.
- Rothwell, D. W., & Han, C. K. (201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Family Stress Among Low Income Families. *Family Relations*, 59(4), pp.396-407.
- Sassler, S., & Schoen, R. (1999). The effect of attitudes and economic activity o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147-159.
- Scanlon, E., & Adams, D. (2008). Do assets affect well-being? Perceptions of youth in a matched savings program.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5(1), pp.33-46.
- Schneider, D. (2011). Wealth and the marital divid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2), pp.627-667.

- Simon, C. & Tamura, R. (2009).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S. cities, 1940-200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1), pp.33-42.
- Smock, P. J., Manning, W. D., & Porter, M. (2005). "Everything's there except money": How money shapes decisions to marry among cohabitat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pp.680-696.
- South, S. J. (2001). The variabl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United States, 1969 - 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4), pp.606-626.
- Teachman, J. D., Polonko, K. A., & Leigh, G. K. (1987). Marital timing: Race and sex comparisons. *Social Forces*, 66(1), pp.239-268.
- Thornton, A., Axinn, W. G., & Teachman, J. D. (1995). The influence of school enrollment and accumulation on cohabitation and marriage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5), pp.762-774.
- Toulemon, L. (2001). Why Fertility is not so Low in France. paper presented at the *IUSSP International Union for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Seminar on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March.
- Xie, Y., Raymo, J. M., Goyette, K., & Thornton, A. (2003). Economic potential and entry into marriage and cohabitation. *Demography*, 40(2), pp.351-367.
- Yadama, G. N., & Sherraden, M. (1996). Effects of assets on attitudes and behaviors: Advance test of a social policy proposal. *Social Work Research*, 20(1), pp.3-11.
- Zhan, M. (2006). Assets, parental expectations and involvement, and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8), pp.961-975.

## **Student Loan and Marriage:** Focusing on Female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ies

**Bae, Ho Joong**

(Sungkyunkwan University)

**Han, Chang-Keun**

(Sungkyunkwan University)

---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student loan of female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ies influences marriage.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ses survival analyses with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 We measured the student loans data especially on the basis of experience of student loan, duration of student loan, amount of student loan and categorical dummy variables of the total amount of student loan. We found that the study group with student loan (the 4 type measurements of student loan) is less likely to get married during the study period. It means that female graduates with student loan were found to delay their marriage controlling for covariates. Additionally, we found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salary and large company with 300 employees or more) is also an influential factor of getting married. While students are facing diverse difficulties to sustain their quality of life, existing research is limited to analyze the situations of youth in Korea. In this regar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student loan should be a policy target to support youth to move out of the vicious cycle of debts.

---

**Keywords:** Student Loan, Marriage, Female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ies, KEEP, Survival Analysis